

À la recherche
d'un charme
caché
grâce à Josy

“당신도 모르는 ‘진짜매력’ 찾아드립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상담을 하는 조지 메르메. 그녀는 누군가와 처음 만나게 되면 걸음걸이, 옷맵시, 말씨, 뼈의 골격까지 자세히 관찰한다. 그리고 곧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지니고 있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직업은 어울리고, 어떤 색상의 화장을 하는 지까지 자세한 상담을 한다.
□ 지도/한국라포르 □ 헤어/새리미용실 □ 사진/양용남 기자

새로운 개념의 이미지 컨설팅을 하는 기질 연구가가 한국에 왔다. 색심리연구가로 통하는 조지 메르메씨는 40여 년동안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 컨설팅을 해왔다.

대학에서 기질학을 공부했지만 그녀가 이 일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아주 특별한 시각적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터였다.

그녀는 딱 한번 만난 사람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쇼핑을 하러 가면 다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을 잘 골라주는 일로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그사람이 갖고있는 독특한 기질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사람의 기질을 연구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



스타일리스트
케르스틴 달러

이 그녀의 주장이다.

1983년 파리에 그녀는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상담활동을 시작했다. 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그녀는 지각력을 날카롭게 다듬었고 점차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직업적인 전문가로서 그녀는 개개인의 개성을 가장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매일 새로운 요소들을 찾아내어 표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상담을 받은 사람은 5천여 명에 이른다. 그녀가 제일 처

음 상담을 한 사람은 흑인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상담을 하는 동안 사람은 크게 네가지 기질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그리고 동양인을 상담하기까지 그녀가 정한 4가지 타입이 인종을 초월해 적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지 메르메의 독특한 방법은 기질과 특성연구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기질과 특성은 각자의 모든 가능성을 끌어내고 가치있게 하며 자신의 중요한 점인 매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 머릿결, 피부, 손목에 이르기까지 재빨리 캐치해 낸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과 직업, 의상, 메이크업,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녀의 조언은 평생을 함께 한다. 사람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기질은 생년월일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나 결점보다는 숨겨진 재주가 많다는 것을 그녀는 강조한다.

그 한 예로 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자신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녀는 객관적 관찰을 하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상담을 하지 않



그들은 3명이 한팀이 되어 상담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킨다.

는다. 매력있는 여성이 결코 다 예쁘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녀에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찾아왔다가 심경의 변화를 갖고 돌아간 일. 그의 뒷모습에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네가지로 나는 기질 중에서 그녀는 세련된 스타일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질 가운데 직관력과 관찰력을 그녀도 가지고 있고 예술적 재능도 있다.

거기에 그녀는 예술적 재능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프리카를 자주 여행하며 사업을 하는 남편 장 루이씨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고 있다. 올해 스물 세살의 아들은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고 스무살인 딸은 영국에서 광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 성장한 두아이의 어머니이고 손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그녀의 몸매는 처녀같다. 지금까지 그녀는 다섯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새벽 다섯시면 기상을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한다. 날마다 그녀가 하는 행사인 찬물 샤워는 의욕을 돋우어 주는 일로 으뜸이다.

파리의 사무실에는 스무명의

직원이 함께 일한다. 그 중에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여섯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섯명이 그녀를 보필하고 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몇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분 후에 당황할 정도로 놀랍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와 그녀의 멤버들은 상담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차림, 화장법, 액세서리 등을 조언한다.

그들은 지나치게 유행에 따르는 일을 반대한다. 유행을 쫓다보면 자신의 개성을 쉽게 희생하게 된다는 것. 오히려 그들은 자

신의 결점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옷의 선택법을 배우기를 권한다.

옷을 성공적으로 잘 입었다는 것은 개성을 얼마나 잘 살려 입었느냐에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비단 여자뿐이 아니다. 사업가들도 종종 그녀를 찾아오는데 바이어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때로 입사시험을 볼때도 그녀에게 면접을 맡기는 회사도 있다.

그녀는 불란서 랑콤 화장품과 독점계약을 맺고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내한은 대만이나 싱가포르 순회에 좋은 반응에 힘을 얻어 이루어진 것.

그녀는 한국에 3일간 머물렀고 한국 랑콤화장품의 후원으로 이전의 메이크업 쇼와는 다른 형태의 세미나를 열었다.

메이크업 쇼에는 메이크업 전문가, 탤런트, 영화배우, 패션모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불란서 랑콤에서 나온 메이크업 아티스트 마갈리 벨라미(28)양과 스타일리스트 케르스틴 달러(23)양이 그녀를 도왔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그저 자연스럽게 빨리 할 수 있는 변신을 제안한다.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맞은 트랙으로 밀어줄 뿐이다.

“여성은 의욕을 가져야 합니다. 옷을 입는 한가지에서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우리 몸과 생각에 익숙해진 잘못된 색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녀의 충고는 상담자의 기호나 스타일을 완전히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자연스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뿐이다.

세련된 스타일, 우아한 스타일, 활동적인 스타일, 자연스런 스타일 등 네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그녀의 이론을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